

‘뉴 저먼 시네마’ 감독 빔 벤더스 영화를 만난다

광주극장·광주시네마테크

25일~4월 7일까지 특별전

‘베를린 천사의 시’ ‘파리 텍사스’ 등
‘미나리’ ‘파이터’ 등도 함께 상영



‘빔 벤더스 특별전’이 오는 25일부터 4월7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빔 벤더스의 대표작 ‘베를린 천사의 시’

1972년 ‘킥을 맞은 골키퍼의 불안’으로 데뷔하며 주목 받기 시작한 빔 벤더스는 ‘베를린 천사의 시’(1987), ‘파리 텍사스’(1984)로 잘 알려진 독일 영화의 대명사로 라 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베르너 헤어초크와 함께 ‘뉴 저먼 시네마(New German Cinema)’의 주축을 이루는 감독이다. ‘뉴 저먼 시네마’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독일에서 일어난 영화 운동으로 젊은 영화인들에 의해 독일 영화가 부흥하게 된 현상을 말한다.

시간과 길, 여행을 모티브로 작품활동을 해온 그의 영화 인생 중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주한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부터 4월7일까지 광주극장에서 ‘빔 벤더스 특별전’을 개최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무렵인 1945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난 빔 벤더스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자랐다. 대학시절,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간 파리에 오스 야스지로, 로베르 브레송 등의 작품을 접했고, 이후 독일로 돌아와 촬영감독 로비 윌러, 음악감독 위르겐 크나어퍼를 만나면서 영화의 길로 들어섰다.

‘뉴 저먼 시네마’의 흐름과 함께 데뷔한 빔 벤더스는 전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혼란과 우울을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사색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울림을 전하는 영화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빔 벤더스가 감독으로서 주목을 받



‘파리 텍사스’

기 시작한 두 번째 장면 ‘페넬티키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1971)과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로드무비 3부작 ‘도시의 엘리스’(1974), ‘빗나간 행동’(1975), ‘시간의 흐름 속으로’(1976)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뉴 저먼 시네마’와 할리우드 영화를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은 ‘미국의 친구’(1977), ‘사무엘

풀러 등 영화감독들이 출연해 화제가 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 ‘사물의 상태’(1982), 도쿄에서 오스 야스지로의 흔적을 찾는 다큐 ‘도쿄가’(1985) 등도 상영된다.

이밖에 칸영화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빔 벤더스를 가장 반열에 올린 작품 ‘파리, 텍사스’(1984)와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과 함께 세계적 찬사를 받은 ‘베를린 천사의 시’(1987),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멀고도 가까운’(1993)도 스크린에 오른다.

한편, 이번 특별전 기간에는 ‘미나리’, ‘정말 먼 곳’, ‘파이터’, ‘중경삼림 리마스터링’ 등도 함께 상영된다. 제 7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파이의 아내’도 25일부터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1940년대 고베의 무역사 유스쿠가 만주에서 목격한 엄청난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자 아내인 사토코가 그를 의심하며 일어나는 서스펜스 드라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의 ‘오감 오색(五感 五色)’ 공연이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합창음악 시대별로 듣는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합창음악을 시대별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김인재) 제185회 정기연주회 ‘오감 오색(五感 五色)’이 2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합창음악의 태동기인 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 그리고 모든 것이 융합되어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총 5개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르네상스 시대 무대는 ‘수줍은 일상’을 주제로 한다. 인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마드리갈과 샹송 ‘내 남편은 멋지고 착합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봄’ 등을 노래한다.

이어 바로크 시대는 ‘슬픈 시선’을 주제로 바흐의 ‘죽음’, 스칼라티의 ‘육체의 죽음이 올 때, 아멘’을 들려주며, ‘엄숙한 기쁨’을 주제로 펼쳐지는 고전주의 시대는 하이든의 ‘Te Deum(테 데움)’을 노래한다. 절대자를 향한 신뢰와 기쁨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낭만주의 시대 ‘자유, 그 섬세함’ 시간에는 베토벤의 ‘죄수들의 합창’, 슈베르트의 ‘야상곡’을 낭송합창으로 선보인다.

공연의 대미는 뉴 밀레니엄 시대 ‘다채로운 흥’으로 장식한다. 박정선 작곡 ‘각설이 타령’, 이진용 작곡 ‘고래 떼의 합창’을 들려주며, ‘여리고의 싸움’, ‘승리는 너의 것’, ‘In the Mood’를 비롯해 흑인영가, 가스펠도 준비했다.

지휘는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맡았으며, 오르간 박영서, 밴드 리더인 백토리가 협연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 문의 062-415-520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종합문예지 ‘문학들’ 봄호 나와

‘면역 민주주의와...’ 특집 다뤄

종합문예지 ‘문학들’ 봄호(통권63)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면역 민주주의와 생명 정치 시대의 윤리’를 다뤘다.

윤상원 소아시아가 대표가 ‘면역 민주주의와 생명 정치-에스포지토와 푸코의 경우’를 주제로 현대의 정체와 공동체를 사유할 부분을 다루며 서보경 의류인류학자는 ‘재난과 무명의 죽음-코로나19와 HIV의 공유 영역에 관하여’를 주제로 생명 정치의 무감각을 넘어설 공동체를 탐사한다.

‘뉴 광주 리뷰’에서는 ‘지금, 광주의 청년활동가들’을 다뤘다. 공익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식과 제도 개선의 효과를 나눠 주는 이들의 이야기는 사뭇 의미가 깊다.

‘장소 ‘들’은 제주에서 임철우 소설가가 보내온 글이다. 제주 정착기이자 노년 적응기이기도 한 글은 제주의 역사와 신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소수자의 이야기를 실는 ‘이야기들’에서는 팬데믹이



후 대거 출현한 오토바이 배달 앱 노동자에 대한 기록이다. “자본이 굴러 대는 배달 앱 노동자들의 처지”와 그들에 사회의 인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곱씹어볼 만하다.

‘리뷰’에서는 김규성 시인이 박현우의 ‘달이따오더니 내 등을 두드리곤 했다’와 이효복의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 김호균의 ‘물 밖에서 물을 가지고 놀았다’, 박세영의 ‘바람이 흐른다’를, 김영삼 평론가는 서용좌의 장편소설 ‘숨’과 김경희의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에 꽃이 피네’를 분석했다.

이밖에 강혜빈·김경옥·김선태·김정원·김필아·박현규·성동혁·염광권·오주리·오지현·전세진·최미정·한경숙·한종근의 시와 신종원·이미란·조현영의 소설이 수록되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향토사전문책방 이목구심서

23일 ‘말술학교’ 다섯 번째 강의

담양의 향토사전문책방 이목구심서(대표 전교필)가 진행하는 인문학강좌인 ‘말술학교’ 다섯 번째 강의가 23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번 강좌의 출연자는 공정여행의 제안자인 임영신 여행가(이매진피노 대표). ‘희망을 여행하라’의 저자는 그동안 ‘공정여행’이라는 새 길을 주장하고 걸어왔다. 관광의 그늘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와 성장 혹은 소멸이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공유해왔다.

이번 강좌에서 저자는 ‘여행, 한 걸음은 다른 길로 한 걸음은 나에게로’를 주제로 여행을 통해 길 위에서 만났던 낯선 세계와 새롭게 찾은 나라는 존재와의 교감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강의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참가비는 3만원. 오는 4월 20일 진행되는 강의는 무등산 야생화, 교과서에 나오는 새 등을 촬영해 온 오영삼 사진가를 초대해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문의 010-3608-9306. /박성천 기자 skypark@

GKL 아트 어라운드 GB 아트스쿨 참여자 모집

광주비엔날레 재단

동시대 접미한 시각 예술 현장인 광주 비엔날레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고품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 시민 대상의 ‘(재)광주비엔날레-GKL 아트 어라운드 GB 아트스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비엔날레장설 배경을 환기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지 광주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다학제적 교육의 장으로 펼쳐진다.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회의 온라인 강의와 매주 광주 정신과 연계하는 전시 투어 및 현장 답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디자이너 디오고 파사리노를 비롯해 참여

작가 김상돈·이상호·파트리샤 도밍게스 안젤로 플레사스야, GB커미션 참여작가 김성환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매주 주말 20명 그룹으로 총 11회 진행되는 현장 답사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 국군광주병원, 양림역사문화마을, 광주극장, 호랑이사나무 아트폴리곤, 국립광주박물관 등 사회 운동 발생지와 예술적 탐구의 공간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재)광주비엔날레는 매일 유업과 함께 하는 ‘광주비엔날레 작가 워크숍’ 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매일 유업 후원으로 진행되는 미술, 건축 등 문화예술 관련 대학(원)생 대상의 워크숍은 4월 1일-9일, 5월 7일 세 차례 20명씩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를 본 뒤 참여 작가인 문경원, 민정기, 조현택 작가와의 워크숍이 마련된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